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5호 [루계 제26109호] 주제 107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단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단천발전소 건설을 성실히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단천발전소 건설을 최단기 간내에 완공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았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연구사 최성일은 결사판원의 기상이 나빠지는 전투장에 찾아가 많은 건설자재들을 지원함으로써 물격리원들의 혁명열, 두정열을 고조시켜 이어지 하였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연구사 렘온에는 나라의 대동력기지를 일때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마음안고 발전소 건설을 몸심령으로 도왔다.

청년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보향지도국 산하단위로 동자 박현이는 온 가정의 지성이 어린 물

자들을 돌격대에 보내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절처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라선국 제작행사 안내원 윤현철은 들풀은 전투장에서 출정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평양시인쇄공장 로동자 김원환은 불리는 에국십과 공민적자각을 암고 공사에 결실히 필요한 스피리를 해결해주어 단천전역에서 위험을 펼쳐가는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회현제사공장 3대혁명소조원 김윤혁도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밟드는 길에서 생의 보람을 찾으며 공사를 톱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조국의 만년체부를 함께 일떠세우는 신

정으로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감독원 백홍식, 선서시 라진지구 지경종합진료소 의사 김경진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지니고 5개년 전략 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앞장서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정은위원장은 국제정치를 주도해나가시는 로숙한 정치가》

온 실로 온 행정을 키다란 총격으로 끌어 번지게 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또한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혜화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

로써 아름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도률들은 정력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질주의로 고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업적을 계속 전하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5돐에 즐음하여 토끼아출판도률들은 7월 25일과 26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광사진문화전을 정중히 모시고 특집하였다. 하바스크로크강인 베르트리신문 「제브리 데페」는 조선민족의 인민공화국에서는 7월 27일 전승절로 경축하고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신문 「畏惧 포스트」는 조선반도의 현 분위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하였다. 「네이 슬운」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강장 상태를 환화하며 조선반도에 평화와 단합,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하여 밝혔다. 대화의 원동력은 분명 그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자신에게 충직한 예지와 명도의 현명성에 환복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흐르던 일족족발의 긴장상태를 가지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단정의 세력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게 송고 한 계획을 드리며 그의 존함은 세계정치, 외교사에 빛나게 되어 새겨질것이라고 견하고 있다.

본사기자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준비위원회가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준비위원회가 12일 노르웨이의 프레드릭스 타운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공화국의 학대학과 강당과 강당전에 쌓아올리신 회의에서 전출위인들의 불법의 업적

준비위원회는 공화국 창건 70돐에 즐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우크라이나 준비위원회가 12일 끼예브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르웨이 공산당 외스트풀드주위원회 위원장 다그 노룹이 선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부름따라 폭풍치며 내달려 공화국 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증산돌격운동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

자강도 안의 당조직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 있게 벌립니다.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여 밟고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이 부글불기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부대를 품은 전투현장을으로 끌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품어 대하고 대중들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찰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공로

자강도안의 당조직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고 대고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그리고 부서안의 파들에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통신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금교양파의 강사들로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투현장을 확장하는 총동원전에 힘있게 블리워

천만의 심장에 불을 나는 애국현신의 강행군

얼마 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함경북도 경성군 운포온로동장 건설준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은 온 나라를 끝없는 격려로 하였다.

지난 7월 중순 한여름의 무더위로 미だ이하지 않고서 고초도 강행군으로 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신 우리 원수님께서였다.

깊은 산중의 발전소건설장, 드넓은 조선소내에 건전화 대회원 공장의 현장으로 쉬임없이 이어가신 현신의 자작마다에 그이께서 바치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얼마나 뜨겁게 것들 어있는 것인가.

함경북도의 경제도태를 풀어놓아 나리와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과 인민사랑에 함께 감격에 힘쓰고 천만군민의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불과 한 달전에 찾으시여 함경북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민에게 안전과 복의 씨앗을 뿐만 아니라 원수님께서 또다시 이곳에 현지지도 강행군로정을 이어가시었으나, 나라이 인민의 마음 어찌 불타오르지 않으랴.

함경북도에 대한 련이은 현지지도로 악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부어주시고 비약과 혁신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을 경성속에 허시며 절세의 위인을 모시 모신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앞으로도 인민의 충직한 아들로서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현신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입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뜻을 달고 있는 공업지대인 함경북도.

이 북부의 대지에 수놓아진 자랑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와 대체 장군님에게 전략과 헌신의 력사를 드롭해 있다.

함경북도를 나라의 민족적 기간 공업지대로, 인민의 땅으로 꾸밀

용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바다가포구로부터 쇠물쪽포 쏟아지는 용해장과 높고 푸른 철산봉, 두만강변의 자그마한 동장마을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길은 얼마였으며 한평생 바치신 로고는 또 얼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고한 뜻을 기어이 현실로 펼쳐질 청서의 의지를 안으시고 지난 7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이 국가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누가 어려울진 말간 순결한 향심을 물으며 지금 까지 많은 일을 하셨다고, 당정책판회를 위해 위원의 구슬땀을 바쳐온 건설자들의 고생과 헌신에 무공무진 한 힘에 의해 발전소언제가 생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파감하니 철저나서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뜻깊은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갈디는 것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었으리라.

돌이켜보면 수력발전소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몸소 일체체계까지 잡아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은 그동안 팔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청년들격려원들이 일을 많이 하였다. 함경북도에로통계급이 많아 그 련지 힘 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전경도가 아니라 건설자들의 수고가 들어있는 팔랑천발전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로고를 어찌 더 해이럴 수 있으랴.

건설초기에는 삼복철무더위속에, 건설이 힘있게 전진되며 그 이듬해에는 설날 강추위가 힘들 때에 찾아오시였고 언제인가는 향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에 이어 건설현장을 찾아주시면서 철기인원들이 설자리까지 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날 김정일은 원수님에게는 원수님을 찾으시여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위하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어찌 더 해이럴 수 있으랴.

김정일은 원수님에게는 원수님의

한경북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크게 밀으시고 고무하시며 떠밀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침들은 그대로 함경북도 철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가 되어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전정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위대한 명도가 있었기에 덧없이 이 흐름에 어랑천을 가로막으며 팔향언제가 솟아올랐고 물길을 험한 준명들을 훌륭히 떨어나갔다.

겨울의 맵짠 눈바람이 물어치던 주제 9·6(2007)년 2월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팔향언제건설장을 찾으셨으�다.

거창하게 험한 경로를 거쳐 한 힘에 수수만년 속절없이 바다로 흘러내리면 어랑천이 거대한 호수로 변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해빛 같은 미소를 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로 험한 광경에 험한 경로를 말씀하시였다.

거창하게 험한 경로를 거쳐 한 힘에 수수만년 속절없이 바다로 흘러내리면 어랑천이 거대한 호수로 변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해빛 같은 미소를 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로 험한 광경에 험한 경로를 말씀하시였다.

내가 2003년 7월에 처음 어

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에 와보았을 때에는 강물이 흐르고 가물가물 이를 한 것이 보였는데 언제를 살아놓으니 이제는 그 혼적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동안 팔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청년들격려원들이 일을 많이 하였다.

함경북도에로통계급이 많아 그 련지 힘 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전경도가 아니라 건설자들의 수고가 들어있는 팔랑천발전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철기인원들이 설자리까지 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날 김정일은 원수님에게는 원수님의

이 세상에 인민의 힘보다 더 강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힘을 총발동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확신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걸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만이 아니다.

굴지의 배우이기지에 서면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위대한 정신력을 출발동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에 없다. 개전현대화전투와 화재선전조정률을 통하여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리의 맏아들이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본색과 사상정신적특성을 남김없이 파시하여 한다고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로동계급의 밭구름소리가 들리운다. 나리랑 왕광기처럼 험기압소 어느 한 광장의 개전현대화전쟁생현장에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한 힘에 고마움과 함께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우리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우리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온포휴양소를 찾으시여 휴양소를 현대화로 대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품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새 기적창조에 내달리는 힘을 충실히 험기압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힘은 계기였다.

이 일대에서 등산과 해수욕, 낚시질과 천렵, 온천욕을 하며 충분한 휴식과 문화체육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이 일대에서 등산과 해수욕, 낚시질과 천렵, 온천욕을 하며 충분한 휴식과 문화체육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비행장구획의 광활한 우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나마 믿음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열미나 감각에 목메이었던가.

오늘 일이 잘되는 단위들에 가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당정책의 윤명이 자기들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조국과 인민의 부팀으로 한군 내대는 실천가형의 일군들, 참된 애국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담당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배제주의, 보신주의, 노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자체 상사부문에서 향강도인

우리 삶의 좌우명

당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청진을 체질화한 일군들, 바로 이런 완강한 실천가들만이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 혜산시와 김정숙군을 비롯한 중요 시, 군들을 현대적으로 꾸러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었는데였다.

도로포장용비치를 어떻게 하면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일군들은 누구도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사장 최성호동무가 자리에서 웃풀 일어섰다.

『폐문제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모였던 일군들은 놀랐다.

필요되는 퍼치량이 많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토하지 않았다.

(혁명전적지도인 우리 도를

더 잘 꾸리는 일인네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

최성호동무는 퍼치를 보장하기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한몸 내대는 완강한 실천가들

민위원회 자체 상사라고 하면 전투력 있는 단위로, 실적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조국과 인민의 부팀으로 한군 내대는 실천가형의 일군들, 참된 애국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담당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배제주의, 보신주의, 노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자체 상사부문에서 향강도인

우리 삶의 좌우명

당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청진을 체질화한 일군들, 바로 이런 완강한 실천가들만이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 혜산시와 김정숙군을 비롯한 중요 시, 군들을 현대적으로 꾸러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었는데였다.

도로포장용비치를 어떻게 하면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일군들은 누구도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사장 최성호동무가 자리에서 웃풀 일어섰다.

『폐문제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모였던 일군들은 놀랐다.

필요되는 퍼치량이 많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토하지 않았다.

(혁명전적지도인 우리 도를

더 잘 꾸리는 일인네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

최성호동무는 퍼치를 보장하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진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습니다.』

농장의 모든 일이 잘되자면 작업반장, 반장은 미루지 못한 초급군들이 핵심적인 할을 해야하며 그려자면 당조직이 그들에 대해 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하지만 높은 요구성을 제기 하여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

온천군 학천리당원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과정을 놓고보자.

올해 초 어느날 10일지령총화가 끝난 뒤였다.

농장일군들속에서는 이런 론의가 있었다. 제4작업반장이 이번에도 10일지령총화에 빠졌는데 되게 문제를 세워야 한다. 작업반장한테 있어 나이도 많다고 하여 관리위원회에 조직하는 사람을 걸친다는 것 같다. …

공문철리당원장의 생각도 같았다. 제4작업반장에게서 나타난 결집을 높여주기 위해 대처해 비판하여 고쳐주며 이를 계기로 초기군들을 단단히 각성시켜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며칠 후 리당원장은 초기군들의 모임에서 제4작업반장에게서 일군들이 높지 못한데로 흡족감을 안겨주며 그를 칭찬하였다. 그는 험난한 일군들이 높지 못한데로 흡족감을 안겨주며 그를 칭찬하였다.

올해 초 전면적인 강경이 되면서 작업반장의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대처해 비판하여 고쳐주며 이를 계기로 초기군들을 단단히 각성시켜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리당원장이 받은 충격은 커다. 작업반의 실태와 작업반장의 성격을 깊이 파악하고 올은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그런데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를 각성시키지 않으면 작업반의 능장의 앞장에 나갔다.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그는 그의 대처에 허락하지 못했다.

리당원장은 자주 당시 표에 내려가서 그를 각성시키지 않아

산촌에 울려가는 수업종소리

신양군 창계고급중학교 화암분교를 찾아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가 보건발간 당시 말
거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
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
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양군 창계리는 그 어리를
돌려보아도 산부인 외진 산골마
을이다.

우리가 신양군 읍에서 100여
리나 떨어진 창계리를 찾게 된
것은 이곳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목숨 헌신한 교단을 지켜가는
부부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교원
이 있는 창암분교까지는 리소
재지에서도 수십리를 더 가야
했다.

우리가 분교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휴식시간이어서 부부교원
과 미주앉을 수 있었다.

리정철동우는 대학을 졸업한
그날부터 20여년간 산골분교
의 교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 알고보니 그는 산골촌에서
나서 자랐다. 당시 품속에서 끼
는 이 땅에 지리적으로 외진 곳
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당의 땃
사로운 해빛이 거당지 않는 그
늘진 땅이란 없음을 짐작으로

체득하였다. 그는 당시 사랑이
산골마을 아이들에게 더 잘 가당
게 하는 것이 당시 뜻을 반드시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대
학을 졸업하자 주제없이 산골마
을로 달려왔고 교원생활의 첫
발자국도 어느 한 분교에서 내
짚게 되었다.

분교에서의 교원생활은 그에
제 교원혁명가로서의 궁지와 자
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한 나날
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처럼
정을 기울이던 분교를 스스로
떠나 결심을 풀게 되었다. 화암
분교에 본교에서 교원들이 한
주일에 한번씩 교내로 내려가
수업을 보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정은 분교를 떠나고 싶지 않았
지만 그곳에도 구김없이 자리
나와 할 10여명의 학생들이 있
았다는 생각으로 선뜻 그곳으
로 달려갔다.

총각의 몸으로 흘러내리던
땀과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누
구보다 수고가 많은 그에게 어
느날 본교에서 소년단지도원을
하던 처녀가 찾아와 분교에 합
세 살 결심을 더해놓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부교원이 되어 아이들

을 가르치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는 교원혁명가로서, 외진
분교의 교원으로서 그들의 신념
과 의지를 지원할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다.

식량이 모자라 맹물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교단에 서는 것은 하
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 등교하는 학생수가 한명두명
줄어들 때에는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등
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렇게 데려온 학
생들에게 집에서 이악하게 키운
연소들의 첫 짜미이며 공부를
시켰다.

며칠 후부터는 아예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살다시피 하며 출
석률을 보장하였다. 마치 한가
정 같은 교원과 학생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마련 감동을 금지 못하였고 부
부교원의 모습에 자기들의 삶을
비추어보며 신설품을 더욱 조이
하였다.

한가정의 삶임도 지탱하기
어렵던 그때 갑자기 불어난 대
식구로 하여 그들은 허리띠를
더욱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당시 뜻을 발휘해온
얼마나 커웠던가.

이 당시로 봄을 예고하는
한 걸정로병이 하는 이 말에 우
리의 가슴은 물을 젖어들었다.

조국을 떠서 지켜온 혁명
선배들이 평안히 여성을 보낸다
고 누가 봐 하라. 하지만 당시
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고맙기에
정성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에 팔찌를 끼운다. 그들 속에는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온 조선
인민군 군관도 있고 대학을 졸
업하고 고향땅으로 돌아와 교
단에 선 제자들이 있다. 군사
복무를 마친 제자들이 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번역하며 모교
를 찾아온 때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오늘도 리정철, 리정희동우는
당이 막겨온 가장 영애를 끌고
보단 한 초소에 쟁여온 놀난
인간만이 유품 같았던가.
리정철동우는 모든 것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온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수십년 세월 하루와 같이 윤여
퍼진 수업종소리. 그것은 후대
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여기에 교육자의 참된
삶이 있고 영예와 궁지가 있다
는 것을 인생관으로 간직한 미더
의 인간들이 유품 같았던가.

그로부터 얼마후 리정희동우
가 분교의 너교원으로 자진해
왔다.

리정철동우가 외진 화암분
교를 지켜온 그날부터 오늘까
지 출석시킨 학생수는 100
명에 이를 때에는 그들이
부부교원의 모습에 자기들의 삶을
비추어보며 신설품을 더욱 조이
하였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유광진

미덕꽃이 피는 나의 화원 속이에야기

경에 하는 최고 명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병동지》를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우리 나라, 인재강국으로 끌어온다. 『내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로, 인재강국으로 육성해온다. 『빛내이자』를 받아안고 끌어오르는 경쟁을 금지 못하면서 학생을 당의 창원 교육전사로 살리라고 불라는 맹세를 다렸던 것이다.

문득 우리의 궁전에는 산촌
의 고요함을 깨며 탕탕히 울려
지는 정다운 수업종소리가 들려왔다.

수십년 세월 하루와 같이 윤여
퍼진 수업종소리. 그것은 후대
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여기에 교육자의 참된
삶이 있고 영예와 궁지가 있다
는 것을 인생관으로 간직한 미더
의 인간들이 유품 같았던가.

얼마전 함경북도정보통신국
으로 청진시 수남구역 주목동에
서 살고있는 한 경쟁로병이 찾
아왔다. 로인은 일군의 두손을
꽉 잡고 수년세월 전쟁로병의
생활을 향상시킨 직장으로 들판
에 죽어온 편지들로 차운 작업반장
리정희동우를 찾았다.

리정희동우는 모두 하나와
같았다. 편지에는 조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운 전쟁로병들을
명세하고 존대하며 철학의 심정
으로 국진히 위해주는 가슴뜨
거운 사연들이 담겨져 있었다.

다음날 리정희동우는 관리국
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
여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남호

정어를 비롯한 수천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놓아주는 일군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워으로 젖어들었다. ..

리당일 군의 수첩에서 인민
들이 머치는 고마움의 목소리
가 울려나오는 듯싶어 우리
는 그것을 선듯 절을 수가 없
었다.

마을을 무통도원으로 꾸리자
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졌다. 편지에는 조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운 전쟁로병들이
모두 고마움이 담긴 편지들이
끊임없이 전해져오고 있다.

함경북도안의 전쟁로병들이
보내온 편지, 여기에는 사회성원
모두가 서로 돋고 이끌며 화목하
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
이 그대로 비껴있는다.

본사기자 김남호

10년은 더 젊어지는 곳

평양시 전쟁로병보양소에서

얼마전 우리는 풍차수레와 함께 어느
한 호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한 걸정로병이 어려장의 사건
들을 펼쳐놓고 흐뭇하게 바라보
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마을 사람
들에게 자랑하고 찢은 것들
이웨다.》

우리에게 보양소의 어려곳에
서 찢은 사진들을 내보이며 전
쟁로병이 하는 말이었다.

그 어리를 가보아도 행복
전쟁로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2층의 유희
오락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전쟁로병들이 장
기판을 마련하고 『장훈 받아
라!』, 『망ени요!』하며 향기로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장기판 주위에서 여러 보양생
들이 걸어온 후수를 놀고 있을
때 그곳에서는 육놀이가 진행되
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우리
의 미움도 절로 흥그려왔다.

이윽고 우리는 어려가지 운동
기체들이 그들에게 힘들어하는
면면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전쟁로병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 세상을

사회주의승리는 진리이고 역사발전의 법칙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비방증상을 열을 올리면서 자본주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려나 그것은 실각한 정치, 경제적위기에 시달리면서 해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형령이에 짜고고 있는 미참한 운명에서 벗어나보려는 단한마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평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고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이다. 자본주의의 면모는 대체로 중증이다. 국소수 특권계층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 사회는 치부를 위해 존재하며 돈을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생산수단을 끌어인 고수수 차

정지어지는 심각한 사회적모순은 자본주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교활한 자본가들은 착취와 압박의 체계와 방법을 보다 세련시키는 방법으로 무너져 가는 통치체제를 유지해보려 하고 있다.

최대의 히윤민을 추구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비인간적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형편화하고 있다. 근로대중과 인연이 없는 사치와 부화방탕을 조장시키는 등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시키는 각종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금, 계층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말려들어 정신적, 육체적불구호로 되고 있다. 마약중독자, 알약중독자, 범죄욕망을 주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신문화생활의 빙궁화도 마찬가

이다. 자본가들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람의식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근로대중을 무지몽매하게 만

들고자 자본주의 적착취제도에 충신풍

기이며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해 반동적이며 반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 생활양식을 대

대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미워하는 것은 돈이다. 국소수 특권계층에 의해 지배되는 자

본주의 사회는 치부를 위해 존재하며 돈을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절대다수 근로

대중은 생산수단을 끌어인 고수수 차

별궁화되는 정신문화생활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반동화되어가는 정치생활사이의 불균형

을 극복할수 없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해결할수 없는 모순이 있으

며 이로 하여 자본주의는 멸망의 운

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남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도 자본

주의멸망을 촉진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존재하는 모순과 반동적인 경제정책

의 필연적현상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에서는 생산성이 수요와 물류간의 불균형을 낳고 경

제위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지원고

찰과 재정난, 반면으로 경제적침체와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파산, 실업자대량의 증대, 통화팽창 등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지금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새로

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요구하면서

남북협조를 강화하는 등 남은 국제

경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로 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은 더욱 커다란 타격

을 받고 있으며 멸망의 나락에 더 깊

숙이 굽어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모순과 대

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리윤회득과

시장경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

반하는 환상간의 모순과 대립이 세

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판세분쟁으로 일컬어지는 무역전쟁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산

생시키고 있다.

사실들을 통해 자본주의는 역사의

퇴물이며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인민의 리익과 평의가 최우선, 절대

되고 있다.

온 나라 방향곡곡에서 창조되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고 역사발전의 법칙이다.

리사발전의 방향은 사회주의에로

의 발전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

의에로의 이행은 인류사회발전의 핵

법칙적법칙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

다른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진리이다.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떨

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

를 구현한것이 사회주의의리념이다.

자주성을 생생으로 하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은 변할수 없다. 또 그것

을 구현한 사회주의의리념도 절대로 변

할수 없다. 사회주의의리념은 지배와

에 속이되며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

유리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서 더자기

주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인류의 공

통된 요구와 지향을 구현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계급

적, 민족적, 암흑파지배도, 치우차와 향

탈도 존재할수 없고 누구나가 자유

롭고 평등하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이상이고 미래

인으로 하여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주의의리념이 절히 구현된 우

리 공화국의 현실은 그것을 뚜렷이

증시해 주고 있다.

인류가 수천년동안 그처럼 갈망

하던 리상사회, 사람들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가 바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사회의

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역사의

희망이 있다.

친보적인류는 자본주의의 멸망하고

사회주의의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고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

시켜 주고 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전진하는 우

리적 사회주의는 영원한 생명력과

불朽위기에게 가진 생기발랄하고 전

도양당한 사회주의이다.

친보적인류는 자본주의의 멸망하고

사회주의의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고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

시켜 주고 있다.

남조선의 북남경제협력단체들은

『대북제재』가 북남관계개선을 방

해하는 것은 헛된 대북제재라고 하면서

북남경제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택벌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공화국압박소동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고 있다.

6. 1 5 광동선언 실천 남측위 원회, 조국통일번민족련합 남측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현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북이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깨닫고 있다.

미국은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정부들과 부르조아리온가들도 조선식사 회주의의야말로 전성한 사회주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이라는 대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정부들과 부르조아리온가들도 조선식사회주의의야말로 전성한 사회주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이라는 대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

『조선의 정책들은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제3000만명의 민족적아름다움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 종일 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확장시킬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 수십년간 속도에서도 국악제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될수록 더 넓어지거나는 경계들이 있다.』